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18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		
경제활력국		소상공인과장	정 순	☎ 710-2520
		경영창업지원팀장	김수정	☎ 710-3901

제주 소상공인에 100억 원 특별보증·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

- 18일 새마을금고, 제주신용보증재단과 ‘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’ 협약 체결 -
- 새마을금고, 제주신용보증재단 각 5억 원 특별출연·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 지원 -

-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‘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’을 추진한다.
- 제주도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, 제주신용보증재단과 ‘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특별보증’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 - 협약식에는 박천수 행정부지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용석 이사,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.
 - 이번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출연금 5억 원과 제주도 민생추경 출연금 10억 원, 제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등 총 20억 원의 보증재원이 마련됐다.
 -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. 소상공인 1,000여 곳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.
- 이번 특별보증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 -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상환을 목적으로 실행된다. 소상공

공인이 신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고금리 채무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.

- 지원 대상은 도내 개인사업자 가운데 기존 7% 이상 고금리 기업 대출(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신용대출)을 보유한 중·저신용 업체로, 업체당 최대 1,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한다.
-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,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단기간에 집중되는 상환 부담을 줄였다.
- 제주도는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을 함께 지원해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를 낮추고,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- 보증심사 기준도 완화했다. 특히 보증료는 일반 보증료율보다 낮은 0.5%로 고정해 0.7%를 감면하는 우대혜택으로 운영된다.
- 신청은 제주신용보증재단 ‘보증드림’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,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.
- 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앱에서 보증심사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.
-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“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도 큰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”며 “이번 특별보증이 고금리 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